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6 5월호



인간의 가치

〈성경 / 잠언 20장 29절〉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속에 죄와 함께 진정한 용기와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얼굴을 똑바로 들고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힘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범한바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될때 비로소 선한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는 의(義)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의 주소를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러운 모든 욕심을 끊고 주위환경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진리대로 바로 살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지혜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5절에 “지혜있는 자는 강하다”고 했고 잠언 21장 22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성의 의뢰한 것을 파한다”고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아무리 몸이 튼튼하여도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만이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제일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며 또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옷사람을 잘 받들어 섬기며 아랫사람을 잘 돌보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여 행하며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선한 일은 비록 힘들고 재미가 없고 물질의 손해가 나도 꼭 실행하고 악한 일은 재미가 있고 많은 이익이 있어도 인정에 치우침이 없이 단연코 끊어버리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고 오늘 꼭 하여야 할 자기의 책임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항상 충성함으로 반드시 성공자가 됩니다.

튼튼한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지혜로운 분, 돈 많은 분, 권세 있는 분이 뒤를 돌보아준다 해도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는 참 힘의 배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배경은 언젠가 무너지는

날이 있고 그것이 무너지는 날 나의 모든 계획도 또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완전한 배경이 될 수 없고 다만 영원토록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약속에 변함 없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완전한 배경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며 구주로 섬기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가치있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여야 합니다.

나의 몸을 절대로 자학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향락을 위하여 몸을 더럽혀 망친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도 적당하게 먹되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을 골라서 먹고, 몸에 병이 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몸을 잘 보살피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힘있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젊음의 때가 다 가고 백발이 휘날릴 때에는 젊어서 가꾸어 놓은 선한 나무에서 귀한 열매를 따 먹으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중심은 청년들과 장년들이고 청년과 장년의 가치는 힘있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와도 성도의 할 일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유바로 축복하며 또한 믿음의 산 증거를 귀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힘있는 일꾼으로 충성하는 데 있으며 힘있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같은 힘있는 일꾼이 되어 책임을 다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시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다 주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간 증현

■ 5월의 행사 ■

- 1/중등부 작은 음악의 밤
- 2/어린이 주일·제직회·남전도회 임원회·권사회
임원회·제정위원회
- 5/주일학교 교사 합동찬교회
- 8/제11회 경로회
- 9/어버리 주일·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
월간증현 편집위원회·여전도회 임원회·헌혈
- 16/장로투표 실시·여전도회 월례회·제정위원회
- 17/교육위원회
- 23/구역권찰회·주교 자부 월례회
- 30/교회 성경암송대회·해의복음선교회 헌신예배

■ 5월호 차례 ■

- 〈설교〉 인간의 가치/김창인 목사2
- 특별기고 □
- 제일 큰 소원은 예배와 성경/서만수 선교사.....4
- ▶ 특 집 ◀
- 성도의 결혼관
- 좌담회/결혼문제는 곧 신앙문제6
-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정상우 목사.....10
- 〈경신도를 위한 신학해설⑤〉
- 구원이란 무엇인가?/이정웅12
- 〈6월 구역공과〉 주기도문/신성종 목사14
- 〈구역장 노트④〉 성례식을 전후하여
- 백성통 목사15
- 〈캠페인〉 총동원 전도운동/김기정 장로13
- 〈월립〉 부모의 참사랑/정은표 집사11
- 〈책소개〉 무디선생의 생애13
- 〈교회 뉴우스〉16
- 〈기자석·편집후기·표지설명〉18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19
- 〈실로암돛가에서〉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린 메달...20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권 두 언 ◀

모범적인 가정

—가정의 달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가정은 곧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사람과 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랑이 없다면 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에덴동산을 바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가정이란 하나님이 광야같은 지상에 새우신 오아시스요, 애정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을 떠난 행복이란 상상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위대한 가정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남에게 해만 끼치는 인물들은 따지고 보면 불행한 가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때에 「가정은 인류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루터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그러면, 모범적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 있는 가정」이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반을 잃은 사막에 불과하다.

다음은 「신앙의 가정」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떠난 가정에 참 사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랑이라는 열매는 신앙이란 나무에 열리기 때문이다. 베다니의 마리아·마르다·나사로 형제의 가정의 외적으로 볼 때에는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것처럼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모범적인 가정은 「진국의 소망」이 있는 가정이다. 참 소망은 현재의 모든 슬픔을 승화시키는 기적을 낳으며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사랑·믿음·소망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간〉

“한국사람으로는 중공의 복음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공의 지하교회가 속히 기동화되어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중에서〉

제일 큰 소원을 예배와 성경

서만수 목사

(주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특별히 공산 치하에서 숨어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지하교회의 주일」을 맞으며 멀리 충현교회의 성도와 「월간 충현」지의 독자를 위해 몇가지 전례드립니다.

이는 충현교회에서도, 아니 한국의 모든 교회도 공산 치하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하여 열성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공산 치하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라 하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 섬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보편적으로 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출갓하게 한다든지 사람들을 자기네 주장으로 유인해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는 어떤면 그다지도 인간의 정서와 이성을 저버리는 사상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숨어 드리는 찬송과 눈물의 호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꽃이 피었다는 평북 선천을 비롯하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平壤), 지금 그 옛날의 거룩한 성전들은 헐렸는지 공산주의의 소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무자비한 붉은 발에 짓밟혀서 흩어진 성도들만이 지하에서 한들씩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점조직화된 지하교회

초대교회시대는 공동묘지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지팡이로 물고기를 그립니다. 지팡이 끝에 그려진 물고기가 표시가 되고 암호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온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공산 치하 교회에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겨우 한 두 사람을 아는 데 불과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만약 탄로날 경우 그 회생범위를 최소한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보

는 것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것도 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생명걸고 성경을 찾아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빌려서 정한 시간에 읽으면서 요절을 베끼고 암송해서 그것을 다시 적어서 돌려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침실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안겨주려고 1974년 지하교회 선교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서독, 남아(南阿), 멕시코, 화란, 오스트리아 등 세계기구가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본부가 있어서 지하교회 발굴 및 후원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본거지인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외국인들을 위한 전시용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전시뿐이고 실상 그 교회에 못모르고 출석했다가는, 자유전영과 집근했다는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명목 하나만으로서 북부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고 지금도 수천명이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영원한 얼음구덩이에 묻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출석은 강제수용소로 직결

18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 성도는 접근한 지하교회 조직원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앞으로 얼마를 더 이 감옥에서 생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삼고 생활해 나간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주일에 동원된 노동을 거부했다고 해서 혹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으며 생산증진이라는 최고령이 그들에게 무겁게 발목에 채워져 있어서 그 옛날 노예시대에 채워졌던 최고령보다는 몇갈절이나 무겁고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란 죄 없는 죄목 때문에 32명이 좁은 감방에 꾸겨져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추운 겨울에 찬물로 끼얹음을 당하는 극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6쌍의 부부가 3년 징역 연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뿐이라고 합니다.

큐바에서는 어느 노인목사 한분이 입원해서 수술 제

⇒선교사 임무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중인 선교관 현장감독도 겸해야 하는 바쁜 일정의 계속이다. 「모든것이 잘되 갑니다」라는 밝은 편지 속에 들어있는 이 사진은 현장감독중 잠깐 틈을 내어 찍은 서목사님의 모습이다.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이 사실을 비밀 경찰에게 고발해서 1년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호부가 환자를 감시하며 미워하는 것도 철의장막 속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수술직전 기도로 1년 징역

루마니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세계라고 외치고 있지만 최근 8천원의 성경을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소각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7년 내지 10년 징역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항가리에서도 성경이 출판되지 않음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에서는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의 어떤 교회는 80명 교인이 모여 있는데 성경은 불과 4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강대용이었고 2권만이 교인들이 지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산전영 교회전물 내부에는 「성구(聖句)가」 각각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조석으로 성구를 읽으면서 암송합니다. 암송해 가지고 집에 가다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는 다시 와서 암송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하교회 운동원이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째서 그렇게 몇번씩 왕래하면서 성경기둥의 성구를 암송해 가세요?」 그 노인이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겠지만, 내 후손들이 이 예배당에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후손들이 내가 암송해 가는 이 성경을 받아서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암송해 가고 있는 것이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에게 접근해서 성경이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인은 「헐쥬요, 성경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당신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성경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관광제절인 여름철이 오면 당신은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교회—성경 4권뿐

관광제절에 관광객을 따라서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철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스파이가 아니라 지하교회의 운동원들이 목숨을 내걸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는 세계 사회사업기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동구로 성경을 밀수시키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특수 관광버스를 만들어서 여행자들을 싣고 가면서 옷가방처럼 포장한 성경을 가져가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다. 작년에도 4천원의 성경전서와 신약이 이 방법으로 의해서 전달되어졌다고 합니다.

성경 보급 위해 갖은 방법 등원

또 하나는 극제적십자 사용 구호약을 트럭을 이용해서 이종으로 자체 성경을 싣고 가다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성경을 떨구고 간다고 합니다. 최근 새로 관심을 가지고 품은 곳이 중공입니다.

한국사람으로서 중공의 복음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공의 지하교회가 속히 기동화되어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에는 주로 구라파의 비자나 관광객을 통해서 접근하며 성경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에게 속히 이 복음의 씨앗이 다시 움트려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예미야는 폐허된 고국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에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뜻을 모아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그 민족이 어디 거하며 어느 구석에 거처할들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되거나 이교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발판이고 땅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첫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적은 규모나마 우리가 선교관을 여기에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든지 회교화되면 우리의 정성과 수고는 일시에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지하교회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며 자유천지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뜻을 모아 지하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그 문이 속히 열리도록 성도여 낙심 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지하교회 성도여, 충성과 인내를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혼문제는 곧 신앙문제

- 일시 / 1976년 4월 22일 오후 8-10시
- 장소 / 「월간 충현」 편집실
- 참석자 / 정관일 목사(청년부 지도) 박월희 집사(여성성가대원) 노광현 집사(제일성가대원)
 황정숙 집사(제일성가대원) 이병학 집사(교육위원 · 고등부 교사)
 이옥균 선생(유년부 교사 · 청년부 부회장) 최혜석 선생(초등부 교사 · 청년부 서기)
 정금숙 선생(초등부 교사 · 청년부 전도부장) 정은표 집사 (「월간 충현」간사)
- 사회 / 오태용 선생 (「월간 충현」간사)



오대윌리엄 오르(William Orr) 박사는 말하기를 “결혼 상대자를 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주주로 택하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결혼에 대한 관념도 변해가는 것 같은데, 차제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결혼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성도다운 준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성서적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한 결혼관

정관일⇒결혼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선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혼을 안 하도록 부른 자를 제외하고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바울이 독신 입장을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권면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으며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볼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결혼에 대해 무슨 죄의식이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생각해 본다면 대개 자기 마음에 맞는 상대자를 찾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뜻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관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맘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인간적인 욕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 할 줄로 알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어떻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가정을 중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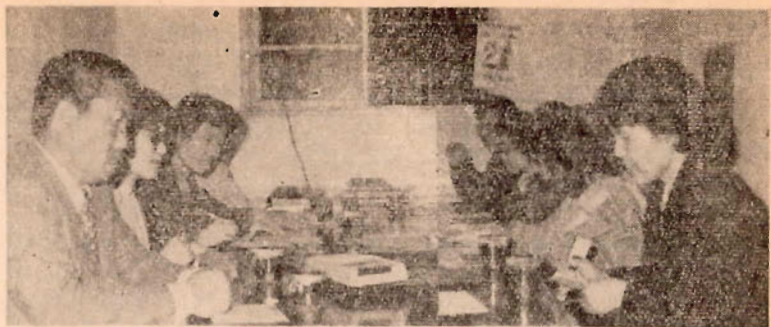
불완전한 중에서도 완전을 향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때가 차면

이병학⇒저는 대학시절 CCC에 관여하면서 잠언서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나 즐거움은 아내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면 내게 맞는 배필을 주시리라 믿고서 자기 생활에만 충신했어요. 비록 적령기를 넘겨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늦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뜻의 배필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배필과는 다릅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 맞는 반려자란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인간의 욕심에는 한이 없기 때문에 자주 보다 나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까 정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하며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쓸 때 주시는 것 같아요.

70~80% 합격의 조건이면

노대지⇒저의 결혼관을 말씀드리자면, 학창시절 때의 생각이었는데요. 배우자의 조건으로, 첫째 기독교인 그것도 세례교인이어야겠다, 둘째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 유전학적으로 여자 계열로 유전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머리가 좋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인간적인 것이겠지만 세계 학벌도 있어야겠다, 비체는 용태(容態)도 좋아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들 조건의 충족이 한이 없는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적으로는 여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외모로는 미스 코리아가 되어야 하고 학벌로는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하니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곤 친구들 몇이서 오래도록 기도해 온 결과 「신앙이 좋고 내게 순종만 잘하는 여자라면 실속 인간적인 결합이 있다는



치더라도 그런 것은 내게 장님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결합이 있는 존재로소이다.]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컵에다 물을 따를 때 가득 담아서 들고 가려면 쏟아지는 확률이 많으나 70~80%만 담으면 덜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70~80%만 합격으로 봐요. 분명히 좋은 조건이라도 맘에 안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요.

꼭 신자와 결혼해야 하는지?

오⇒우리 신자가 결혼관을 내세울 때에 오래 신앙을 말하는데, 과연 끝까지 신앙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오히려 자기나름대로의 조건을 더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 이와 관련해서 꼭 동질의 신앙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불신자와도 결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박⇒믿는 성도가 원칙이겠죠. 저도 사실 결혼 전에는 불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예요. 안전한 생각일지는 몰라두요.

최⇒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불신자로서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부족을 느끼고 뭔가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또 가족에게도 전도하기가 힘이 들텐데, 불신의 배우자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때문에 같은 신자가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은 동정이 아니라고 봐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 그러기에 온전한 인격적인 결합이어야죠.

이병⇒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문제에 있어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건이라면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할 때는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십니다. 저의 경우는 제 아내 혼자서 믿었는데 주변 의견이 반반이었죠. 지금은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나오거든요. 요는 그때 그때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만이 인간의 마음 다스린다

황⇒남편이 불신인 경우에는 그것이 참 어려워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무릎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으나 남자가 불신일 때는 시련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신앙뿐인 것 같아요. 20년 이상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요. 이럴 때 남자가 불신일 경우 여자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내 친구의 경우, 결국 남편이 돌아오긴 했으

나 「이렇게 많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나?」라는 그녀의 독백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옥⇒왜 기독신자의 결혼이 힘든냐면, 동질적인 신앙을 원하고 그 속에서 이상에 맞는 자를 고르려 하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시하는 가정생활이 되어야 참 평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믿는 자와의 결혼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금⇒신앙의 기준을 세우기가 모호하고 또 동질의 신앙을 찾기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세례교인이면 다 좋은 신앙이냐는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동질적인 신앙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주 치우친 자유주의자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참 신자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노점사님께서 70~80%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간적인 면을 70% 정도로 보고 나머지 30%는 신앙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 해요.

황⇒교과 여부는 꼭 보수교단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맞는 신자이면 되겠지요.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이 사회에서도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나를 생각해야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church-goer)과 믿는 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봐요.

꼭 필요한 결혼의 훈련

정은⇒우리가 흔히 결혼에 고을인한다는 말을 하는데, 결혼은 고을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결혼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정이고 계획과정이고 준비과정인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젊은이들은 시대적으로 결혼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세대는 때가 차면 부모가 알아서 짝지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서둘러야 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방황이 심하지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결혼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25세가 넘어서야 「아, 내가 결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책임은 첫째 부모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오⇒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결혼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인간적으로는 이들 조건의 충족이 한이 없는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적으로는 여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외모로는 미스 코리아가 되어야 하고 학벌로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니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노⇒기도는 역시 예수님의 산상기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님의 뜻대로 하주세요」 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병⇒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 앞길에 결혼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흔들리는 믿음일 때, 다시 말해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로 인간적인 방법도 썼다가 하나님의 방법도 썼다 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로 다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놓치는 수가 많지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확신한 가운데 거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포자기 상태의 기도

정은⇒이건 아까 말씀드린 결혼의 준비와도 관계가

있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애매모호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매를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잘 안되니까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스스로 갖추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맡겨버린 채 나는 결혼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좋은 배우자를 알아서 선택해 주시겠지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맞는 배우자를

일반적으로 결혼이라 하면 상대자만을 알아알부하는 데 그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떠한 수준의 상대방을 바란다면, 자기도 그와 같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결혼관은 하나님께 간구하되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과 수준이 맞는 상대편, 자기의 능력에 비추어서 맞는 여자(남자)를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상대편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중보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질의 신앙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상대자를 적나라하게 펼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흔히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열정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데요. 자기의 결혼관이 확립되고 거기에 맞는 상대편이 있다고 하면 정열적으로 대위해 들어가는 기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다음으로는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문제임에 틀림 없는 결혼문제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카운셀러제도의 필요성

노⇒우리 중현교회는 종각이 부족된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눈치껏 해주지 않고 아무런 기회도 마련해 줘 없어요. 저의 경우는 제 스스로가 개척해서(일동 폭소) 결혼을 했지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있어 여자는 대부분 실패하나 남자는 70~80% 성공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카운셀러가 있으면 좋겠어요. 「상담실」을 운영해서 결혼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생활적인 문제도 완전 비밀을 지켜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바라는거죠. 젊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할 경우 이를 거절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지, 혹시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상 ☆



마음과 마음의 풍부함 속에

차 영 애
〈제일성가대원〉

천재만상의 선남선녀들이 제각기 그들이 살다간 인생중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배우자 선택이었으리라.

선택함에 있어 일방적인 상대방의 완전한 조건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와 조화를 이뤄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고 싶다. 그러기에 우선 서로 개성이 다른 사람끼리 살아가는 데는 가치관과 사상이 같거나 어렵지만 같으려고 애쓰는 누군가와 나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사랑은 돌이 마주 봄이 아니라 함께 한곳을 바라봄이라」고 한 것처럼 서로가 일치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무엇인가 서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길 바라고 싶다.

서로의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 맺어진, 그래서 끄집어내는 고통의 격렬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기힘으로 두 얼굴이 활짝 개일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의 풍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만을 바라는건 아니다.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에는 세상엔 너무도 사랑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려 나갔을 때 그의 영혼으로써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대 결국 두 영혼이 서로의 만남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외에도 성격, 건강, 가정, 하얀 웃음 등을 더 공교롭게 간직한 사람이길 바란다면 욕심일까?

“같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을 바라지만 인간적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복잡·미묘한 관계를 지실(知悉)해서 가능한 여건 내에서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특히 가족이 안 믿고 혼자만 믿는 젊은이인 경우는……”

이병⇒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친절을 느끼는 수가 많은데요. 겸손하고 친절한 것도 좋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행동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황⇒친절의 정도가 문제이겠죠. 그리고 저 역시 교회 내에서 카운셀러제도를 바라고 싶어요.

이옥⇒저희 청년부를 볼 때요, 동질적인 신앙을 원하고 같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을 바라지만 인간적인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를 지실(知悉)해서 가능한 여건 내에서 모든 격령기 청년들에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족이 믿지 않고 혼자만 믿는 젊은이인 경우 고민이 많은 듯합니다.

이병⇒진정한 카운셀러는 주님이라고 봐요. 목사나 전도사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카운셀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줄 압니다.

정금⇒물론 우리의 카운셀러는 주님이시지만 많은 미혼 남녀들에게 교회로서의 대책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예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 목사님께서 좀 정리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곧 신앙문제

정금⇒참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청년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점들을 발견해 열 구해 보려 합니다. 옛부터 어른들 말씀에 결혼은 속아서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는 곧 길이 생각 안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로서는 생각은 길이 하지만 결단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봐요. 흔히 보면 결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람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조급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적 태도에서 생각할 때 이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결혼은 조만(早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 되어야 할 줄 알아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주님이 참석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결혼 상대자란 세계교인으로 주일을 지키고 교회 봉사를 하며 심일조 잘하면 될 것으로 알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실제로 어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은 선 보려 가는 아들에게 너 자신은 50점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60~70점이면 허락해라고 했다 그예요.

☆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상 ☆



인격(人格)의 발전적 만남

성 주 진

<청년부위원장>

그것은 알지도 못하는 상대를 벌써부터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미지의 무지개를 “자주만 쌍다가 허물어뜨리고는 모르는 채 돌아설 때 부딪히는 그 사람과의 만남—그도 채색된 안개를 헤치면서 그 길로 들어선 참이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길(주가 예비하신)안으로 들어선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의 그릇이며 아름다운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을 배워 얻는 일상의 교실에서, 잡다를 넘어 순수함을 얻고 단조로운 속에서 자유를 표현시키는 어쩌면 외롭고 험한 길에서, 설레이도록 반가운 인격과의 만남이다.

사랑의 본류(本流)에 피운 인격의 터진 틈으로 고통이 몰같이 새어들 때 바빠 움직이는 상대의 손등에서, 덤실거리며 밀려오는 많은 짐들을 헤치며 땀진 눈으로 훑쳐보는 서로의 미소에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인격(人格)이 창조해 가는 세계이다.

같은 목적지, 같은 신앙과 소명의식(召命意識)을 대전제로 하고, 그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대와의 만남에서 깨어지고 충동하며 고통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담아가는 것, 두 개의 불완전이 하나의 완전을 화음(和音)하는 과정—이것은 차라리 거룩한 도장(道場)이다.

기도문제는 잘 19:14 말씀에서 보듯 어디까지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남편(아내)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특별히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믿음직한 남편을 구하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이지만 주님만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네, 고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젊은 이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결혼관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결혼준비를 알뜰히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혼대상자를 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택하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윌리엄 오르 박사는 말한다. 성서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

—성서의 입장에서 본 결혼관—

정 상 우 목사

(부목사 · 성가부지도 · 월간충원편집위원)

결혼은 젊은이들이나 결혼준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 사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이며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다.

1. 결혼의 의미

(1)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제도이다(창 1:27, 28; 요 2:1-10; 히 13:4).

창세기 1:27, 28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세동안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어 부부로 세우시며 복주시므로써 결혼제도를 친히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히 13:4).

(2) 결혼은 두 사람이 한몸되는 엄숙한 선언이다(창 2:23; 마 19:5; 엡 5:31).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으며, 아담은 하와더러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다. 여기 “한 몸을 이룰지어다”의 「한몸」은 육체적 결합만을 뜻하지 않고 영혼·육체의 전 인격적 사랑의 결합을 뜻한다. 또 이 부부일치의 원리는 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부부가 될 수 있는 「일부일처주의의 원칙」과 ② 한번 결혼한 부부는 나누일 없는 「불가분의 원칙」(마 19:6); ③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사랑의 원칙」(엡 5:25; 딤후 2:4)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앞서 “이 결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한몸될 수 없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의 결혼은 어디까지나 신앙 본위에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이다. 신앙이 야말로 부부의 애정을 승화시켜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며 힘이 된다.

(3)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 돕고 위로하며 청지기적분에 충실하도록 제정하셨다(창 1:28; 2:18; 전 4:9-12).

창세기 2:18에서 「돕는 배필」은 청지기 사역의 동

역자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앞서 “이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생활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생활을 권장하셨다(고전 7:1, 7, 8, 34, 35, 38, 40).

(4) 결혼은 인간의 성(性)의 욕구를 통제하고 한 가정을 이뤄 거기서 출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세우셨다(고전 7:2; 6:18; 히 13:4; 시 127:3; 엡 6:4; 시 78:4-8).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을 생각할 때에 성결한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명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5) 결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우셨다(고전 10:31; 사 43:21)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결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앞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결혼으로 이뤄지는 가정생활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2. 결혼의 대상자

“어진 여인은 그 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저아비의 뼈가 썩을 갈게 하느니라”(잠 12:4).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잠 31:10).

성도의 배우자 선택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택하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윌리엄 오르(William Orr) 박사의 말처럼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로 심판을 받는 노아시대 타락상의 원인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창 6:2-3).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오늘날의 성도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로 오늘날의 불신자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인생을 뜻한다. 그러므로 욕

제미에 현혹되어 이방전혼을 한 그들의 세계(세의 후손)에는 선명한 생활을 찾아볼 수 없이 타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결혼의 기본조건으로 재산·인물·학벌·가문 등 「외적인 조건」만을 중요시하면서 불신자와 서슴없이 결혼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도의 배우자선택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며, 결사장의 아름다움보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더 귀한 것이어야 한다(잠 31:30).

여하튼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는 성도라면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것이다(고전 7:39). 성도가 불신자와 더불어 혼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방혼인을 금하고 있다(창 26:34,35; 출 34:16; 신 7:3,4; 스 3:1,2,12; 느 10:30; 말2:11; 고전 7:39; 고후 6:14-18).

그러므로 성도의 결혼은 어디까지나 신앙 본위에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이다. 신앙이야말로 부부의 애정을 승화시켜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며 힘이 된다. 만일 성도들이 신앙문제를 도외시킨다면 육신적으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언제나 불행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3)하신 성경의 교훈은 일생을 결정하는 결혼에 있어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3. 결혼의 준비

끝으로 성도는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자.

- ① 주 안에서 바는 결혼관을 가져야 한다. 내가 왜 결혼해야 하며,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결혼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잠 19:14; 마 7:7-11; 빌 4:6).
- ③ 주 안에서 배우자를 힘써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배필이 누구인지를 부모와 교역자와 선배 등의 협조를 받으면서 계속 찾아야 한다(창 24:3-12).
- ④ 때로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조바심이나 낙심하지 말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고전 7:37-40).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배필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창 2:22; 시 37:4,5; 롬 8:28).

◁ 명 상 ▷

♣ 죽음의 공포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다. 헤엄을 못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이 물에 빠진 것을 건지기 위해서 물 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시킨 것이다. 사람은 나 이외의 사람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발로되는 것이다. 인생에는 허다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사랑뿐이다. 사랑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

(플스도이)

부모의 참사랑

정 은 표

얼마 전 10대의 딸이 절도혐의로 경찰에 잡히자 자식의 죄는 내 잘못이라면서 자살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회면의 특기사로 눈을 끌었다. 매우 딸들과 교회에도 다녔다는 그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죄값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남의 것을 송두리째 들어먹고도 처세술이 능한 사람으로 으시대는 사회이고 보면 3만여 원 어치를 도둑질한 딸 하나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못이겨 죽어갔다는 것이 한편 애석하기도 하지만, 한편 그래도 아직 양심적인 책임감이 있는 부모도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을 갖게도 한다. 그러기에 신문은 주먹만한 글씨로 『속죄자 살한 모정(母情)』이라는 동정적인 제목을 달아주었나보다.

그러나 꼭 그런 방법으로 밖에는 모정이 표현될 길이 없었으며 죽음의 길만이 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 이같은 안타까운 질문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는 반드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자녀를 단지 한 가정의 소유물로 볼 때 부모의 사랑이란 것이 부모가 바라는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심하면 부모의 사회적 체면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비극으로 돌변하고 만다. 그러한 부모는 자녀가 노여워해도 슬퍼해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니까 하는 단순한 소유의식 때문이다. 그러한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삶의 목표는 한 가족이나 세족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돈·명예·권세 등이 가치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된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는 자녀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과 훈련을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청지기적인 자세의 부모일 것이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 쓰실 일꾼으로 키워야만 된다는 강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리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거저된 것으로 먹이고 입힐 수도 없을 것이다. 부모의 평안과 가족의 안일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웃과 민족과 인류를 생각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들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정 응

(고등학교 4 · 종신신학연구원 2년)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이 인간도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인간도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같이 인간도 거룩함을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며 도덕적 동물이며 물질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과는 약속 혹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순종하면 행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Man in the Covenant of Works)이라 한다. 이 말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에 둔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적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과의 계약방법은 쌍방의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계약방법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계약의 말씀선포이다. 이 말을 최초로 말한 신학자는 어거스틴(Augustine)이다. 그는 「신의 도성」(de Civitate Dei)이란 책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좌우간 이 언약에서 아담은 불순종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체적 죽음이 왔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한다(엡 2:1).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서 인간을 죄악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도록 두시지 않고 「은혜 계약」을 세웠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저희들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sola fides)으로만 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단순히 믿는 믿음이다. 구원은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다. 오늘날 로마교회(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선행과 믿음이 합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성경은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롬 3:27; 엡 2:8).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행위란 믿음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은 인간은 다 죄인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다(롬 3:10). 하나님께서 99퍼센트를 이룩하시고 1퍼센트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은 1퍼센트도 지키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한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관에 확신이 있어야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롬 9:11; 엡 2:8).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도 많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지 못해서 확신이 없다. 쉬운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갓난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도 내가 아버지 · 어머니의 아들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며 또 말도 못한다. 그러나 장성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빠 · 엄마라고 부르며 의심치 않고 아버지 ·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안다. 신자들도 영적으로 성경지식이 없고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잘 깨달지 못하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며 확신을 갖는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자신이 생기지만 성경을 잘 안 보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 좀 속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제거해 버릴 부모가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택하신 후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든지 지으면 안된다. 성경에 말하는 사함받지 못할 죄들이 몇가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위험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언제나 우리를 권고하시며 위로하시고 범죄에 자리에서 괴랄 길을 주신다. 우리가 언약해서 혹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으나 사망의 이르는 죄는 결코 짓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요 도적이 다. 그는 믿는 체했으나 신앙이 없는 자이다.

물론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성직은 가졌으나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인위적인 교인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했으니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택함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믿음을 주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면 말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같다. 택함을 입은 자녀는 결단코 성령을 유혹거나 저주하거나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적그리스의 행세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으니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된다.

총동원 전도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6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으며—

김 기 정 장로

<전도위원회 부위원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복음 전파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비단,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상 끝날이 임박한 이 긴박한 때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미리 백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요, 의무이며, 사명(고전 9:16-17; 롬 1:14-17)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전도를 해야겠다고 캠페인을 벌일 때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사전 준비가 없이는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이지요. 첫째로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전도에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고, 둘째로 성경을 읽고 믿음의 힘을 먼저 전도인 자신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신자의 수는 이 인구폭발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교회는 과연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기하급수적 증가운동이 일어나야 하리라 생각할 때에, 적극적인 전도운동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6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모든 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무대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업은 결코 어떤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교인이 이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온 교인은 남녀 전도회와 해외복음선교회에 참여할 것이며, 특별히 남녀 제직 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신 거룩한 전도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쉬임 없이 전도하여 복음으로 땅 끝까지 정복합시다.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길 없는 고백.....
.....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
.....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들.....
.....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박 종 구 편



신 망 애 출 판 사 발행

4·6판 264면 값 800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미국과 영국, 아니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은 번지게 했던 무디(Moody) 선생—그의 생애는 날품목동, 파분한 구두수선공에서 출발된다. 거리에서, 교회에서, 산위에서, 배위에서, 학교에서, 공회당에서, 경마장에서, 극장에서 군대막사에서, 빈민촌에서, 궁전에서, 기차안에서, 마차위에서 일으켰던 그 부흥의 불길은 한 세기 이상을 휩쓸었다. 천태만상, 파란곡절로 이뤄지는 그의 생애가 특별 수집된 사진화보 32면과 함께 공개되어 있다.

가난한 미장이의 9남매 중의 일곱째 아들로 태어난 그가 구둣방 창고에서 증생하여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대의 사명을 수행해 낸 이 위대한 이야기는 독자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감동을 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은 어린이로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독자의 범위가 넓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자 한개를 세로 얻어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로 만든 교사 무디, 가난한 서민 출신의 전도운동가 무디, 교회와 신학교의 설립자인 무디에게서, 평신도와 목회자는 물론이고 불신자에게까지도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창을 열게 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박종구 선생은 시인이며 동화작가여서 무디 선생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에피소드(episode)를 극적 구성과 부담감 없는 문장으로 전개시켜 한 번 책을 펼치면 끝까지 읽어야 할게 한다.

* 조선근 집사(「월간 충현」 편집위원)

구 역 공 과

◇ 6월 공과 ◇

제 2 장 주기도의 첫째 간구

성경/마 6:9

찬송/새 97장(합 10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의 본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 20:1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게 된다.

2.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에게 명예와 존경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정도에까지 이를 수가 없다.

3.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① 그(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참고/마 7:23). ②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③ 그를 의지[신뢰]하는 것이다(시 33:21). ④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시 5:11). ⑤ 그에게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레 10:3). ⑥ 그의 날[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렘 17:22). ⑦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시 96:8). ⑧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시 40:8). ⑨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시 71:8; 계 5:13; 시 111:1). ⑩ 그의 이름이 손상을 입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슬퍼하는 것이다. ⑪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꼭 같은 존귀를 성자 예수님께도 드리는 것이다(요 5:23). ⑫ 그의 전리의 편에 서는 것이다(유 1:3). 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전도]이다. ⑭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⑮ 고운 말, 거룩한 생활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4.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②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그가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또 그에 대한 사랑 없이 참으로 그에게 존귀를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제 3 장 주기도의 두번째 간구

성경/마 6:10

찬송/새 310(합 272)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라(왕국)를 가지신 왕(시 47:7)이 되심을 말해준다.

1.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부정적인 면에서 정치적 또는 지상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요 18:36). ②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벌써 임했기 때문이다. ③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왕국」을 말한다. 이것은 성도의 심령 속에 즉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임한다(눅 17:21). ④ 그것은 「영광의 왕국」 즉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 즉 전자는 아직 이루어져 가는 단계에 있고, 후자는 완성된 나라이다.

2. 「나라이 임하옵시며」는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아직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 이 「어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① 그것은 무지의 어둠이다(엡 4:18; 고전 2:14). ② 그것은 죄의 어둠이다(롬 13:12). ③ 그것은 불행과 고통을 말한다(골 10:21, 22).

3.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간구는 이 땅이 아직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임을 뜻한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어떤 성질의 나라인가?

① 그것은 불경건의 나라이다. 사탄의 별명은 「머려운 영」(눅 11:24)인데 별명 그대로 사탄은 자연과 인간을 더럽히며 다닌다. ② 사탄의 나라는 자유가 없는 예속의 나라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관용도 동정도 없는 폭군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self-denial)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마 16:24). ②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세밀히 가르쳐 주고 있으며 날마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기 때문이다. ③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시 109:4). ④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 ⑥ 깨어 있어야만 한다(막 13:37). ⑦ 무엇보다도 세가지 은혜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골 1:12)과 믿음(벧전 1:9; 행 16:31)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고전 2:9)을 가져야 한다.

구역 소식

■ 축하합니다. (4월중 결혼)

- 박흥규/주교교사—5일, 충현교회
- 홍기철/김경림 집사 아들—6일, 충현교회
- 임철복/전박숙 여사 3남—12일, 서울에식장
- 이철호/주교교사—19일, 충현교회
- 권석기/시상연 권사 아들—20일, 충현교회
- 김정순/홍지인 권사 딸—20일, 충현교회
- 오경균/오세환씨 아들—21일, 영빈관
- 강대우/박은덕 집사 아들—21일, 유진에식장
- 김세하/조옥섭 집사 아들—24일, YWCA강당
- 노명환/김화련 권사 아들—24일, 종로에식장
- 고명경/조남희씨 딸—20일, 명동에서
- 최명옥/장성순 집사 딸—24일, 아스토리아호텔
- 정석호·박정연/청년회원—27일, 충현교회
- 오선옥/청년회원—27일, 충현교회
- 김에숙/박순옥 여사 딸—27일, 기독교대학관
- 강용자/강정선씨 딸—2일, 아스토리아호텔
- 조두희/남계원씨 2남—3일, 신혼에식장
- 이수일/돈암구역—3일, 이화에식장
- 임기철/6일—충현교회
- 양시경/상도구역—17일, 트알호텔
- 권인형·원경희/마포·돈암구역—24일, 신혼에식장
- 김용만/월곡구역—24일, 동원에식장
- 오무근/답십리구역—23일, 서울에식장
- 박억세/면목구역—14일, 고려에식장

■ 위로드립니다. (4월중 별세)

- 오재택 장로/오승률 장로 부친, 13일
- 김인복/월곡구역, 15일
- 변형룡 집사/20일
- 이재석/사구갑 권사 친모, 27일

■ 4월중 해외이주 가족

- 지창덕씨/화양구역—16일, 파라과이
- 박기련 권사/초동부 부감—9일, 브라질
- 오정자 집사/23일, 브라질
- 조영숙 집사/고 이삼은 전도사 미망인—24일, 미국

■ 성경암송대회—5월 30일에

오는 5월30일 신약중 에베소서 전장을 암송하는 성경암송대회가 주일학교 학생을 포함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개인 및 가정 시상과 아울러 「구역상」도 시상하게 되는데 「구역상」은 참가자 수가 제일 많은 구역으로 5등까지 시상하리라 한다.

각구역은 구역의 명예를 걸고 열심으로 참가할 것을 바라고 있다.

□ 구역장 노트 ④

성례식을 전후하여

백 성 룹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성례식을 전후하여 구역장의 활동은 한층 더 바쁘게 된다.

이번 춘기 성례식에는 전례 없이 많은 교우들이 신앙문답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문답 지원자만 도합 508명이었으며 문답 서약자는 494명이었다.

이분들이 문답하기까지는 구역장들이 문답의 절차를 지도했어야 했고 또 앞으로 명심하였다가 지도와 협조에 힘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① 권찰플트 하여금 문답지원자를 조사케 한 다음 구역장은 그 명단을 성례식 20일 전에 제출할 일이다. 이때 문답 자격이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문답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② 문답 자격에 대하여는 문답 전 약 1개월 동안 주보를 통하여 광고되고 있지만 광고된 사항 외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외워야 하며 주초문제나, 주일성수문제, 미신행위 등 신앙생활에 구애받음이 없음을 잘 알아보고 지도하면서 문답에 용하게 함이 옳다.

③ 문답지원자로 하여금 은혜롭게 문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과 특히 예비공부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④ 문답원서 용지는 명단 제출과 동시에 받아서 교적번호를 기입한 다음 배포하도록 할 것이다.

⑤ 문답원서에 설문사항들은 본인이 기입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답하러 오며 사무실에 제출하게 할 것이다.

⑥ 등록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그밖에 사정으로 문답당일에 원서를 받아 문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역장이나 권찰들이 같이 따라와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는 주교 해당부처의 지도교역자가 이 일을 맡아 주기토 되어 있다.

⑦ 문답원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세례식날 각급 문답자 좌석배정 순위를 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⑧ 문답서약을 하는 날 권찰들은 자기구역 문답자를 안내하여 좌석배정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력하는 일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⑨ 문답서약이 끝나면 서약자 명단이 인쇄되어 각 구역장 앞으로 배포된다. 이 명단에 의하여 신급별 인원통제를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문답한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기 위하여 문답 결과를 검토하고 구역장에게나 그 밖의 구역요원들에게 교육을 의뢰할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알려 두는 바이다.

일선장병 위한 진중세례식

—최전방 1,147명 장병에게

육군 제○○○○부대 연병장에서—



지난 4월 22일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부목사들의 집례로 일선장병을 위한 진중세례식이 베풀어졌다. 이날 세례를 받은 장병은 모두 1,147명이었는데 이들은 아직도 얼음물기가 보이는 해발 1,174미터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최전방에서 극도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장병들이라고 한다.

세례식을 위한 이날의 예배는 김영진 군목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와 30여명의 우리교회 여성성가대의 찬양이 있었고 군악대가 반주를 하였다고 한다. 이날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목사님과 여성성가대원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지프차를 보내어 마중케 하는가 하면 연대 입구에다 「진중세례식」이라는 현수막과 아치들을 세워 세례식을 위한 정성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일선장병들에게 우리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준 떡을 나눌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사랑을 맛볼 수 있었고 4시가 넘어서야 연대본부를 떠나게 되는 일행을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 길가에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어 전송하는 모습은 감격적이었다고 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에 세례를 받은 1,147명의 장병을 위해 특별히 간곡한 기도가 있어야겠다.

의료전도 실시

—남전도회, 지교회 지역서—

지난 1일 남전도회(회장 김기정 장로)는 지교회인 금현교회가 있는 경기도 여주군의 외릉리 마을 주민 150여명을 상대로한 의료전도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세번째가 되는 이같은 의료전도는 연중사업 계획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번 의료전도를 위해 홍중섭 장로(피부과 의사), 엄필성 집사(치과 의사), 박치만 집사, 장봉순 집사, 이강재 선생(약사) 등 5명의 남전도회 회원이 봉사하였다. 특히 장봉순 집사는 하루 전에 현지에 내려가 마을 전체를 위해 축조전도를 실시하였다. 현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남전도회는 이 의료전도의 기회를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이주 예정자 교육

—해외서도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지난 3일 저녁 충현의 성도로서 해외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당회실에서 있었다. 형편에 의해서 비록 거주지를 해외로 옮긴다 하여도 있는 그곳에서 충현의 성도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같은 교육계획은 3개월 이내에 해외로 이주할 사람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교회 부목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① 올바른 교회 ② 올바른 교리 ③ 올바른 국

가관 ④ 선교사적인 사명 등이라고 한다.

부활절 음악예배 드려

—성가부 주최로—

부활절을 위한 음악예배가 지난 4월 11일과 18일 주일저녁에 있었다. 특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11일에는 제일성가대는 드보아 작곡인 「십자가상의 7년」이라는 부활절 칸타타를 연주하여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 이날 저위는 김정일 집사가 오르간 반주는 천혜숙 선생, 피아노 반주는 김영희 선생이 담당하였으며 바이올린과 플루트의 관현악 협연은 더욱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18일에는 대학부 성가대의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가 있었는데 헨델의 「할렐루야」 등 모두 일 곡곡을 연주하였다. 저위에는 김중석 선생, 반주는 이승준 선생, 낭독은 김현수 군이 각각 담당하였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지난 4~7일까지—

지난 4일 저녁부터 7일 새벽까지 제13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아침 시간은 기도회 시간으로 오후 시간은 세미나로 저녁 시간에는 저녁예배로 진행하였는데 저녁예배 설교는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담당하였다. 또한 6일 오후에는 안보강연과 아울러 영화상영도 있었다.

가칭 산업전도교육부 신설

—우리교회 실업인과 직업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4월 11일 당회는 가칭 「산업전도교육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부장에 황기성 장로, 지도교역자에 홍종만 목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주일학교 한 부(部)로서 발족하게 될 이 「산업전도교육부」는 우리교회 실업인들의 전도훈련과 직업청소년들의 종교교육 및 신앙생활지도를 실시하여 각 직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신설되는 이 「산업전도교육부」의 활동이 본 계도에 오르게 되면 보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우리 교회 실업인들의 직장의 복음화를 촉진함은 물론 어려운 환경여건과 직업인이라는 입장으로 현재의 주일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 청소년들을 흡수하여 직장전도인으로 교육·훈련함으로써 그들이 소속한 직장의 복음화는 물론 청소년문제의 선도라는 사회계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오늘은 어버이주일

—어제 청년부는 경로회 열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어버이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며 모범 어머니와 스승을 표창하고 감사하는 등, 주일학교 각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청년부에서는 「제11회 경로회」를 열어 만 70세 이상된 150여명의 우리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접하였다. 백성로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있는 다음 이어 식사와 위로순서를 가졌는데 특히 영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의 재롱은 더욱 호뭇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였다. 또한 청년부는 오늘 세검정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역시 노인들을 위로하리라고 하는데 이같은 일련의 행사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어버이에게 순종하며 노인을 공경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김종석 장로)

김종석 장로 주교연 회장에 피선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 총회에서 우리교회 김종석 장로(초등부 부장)가 제 5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또한 우리교회의 홍종만 목사는 위 연합회 총무로, 최석주 장로는 협동총무로 각각 임명되었는데, 앞으로 연합회 발전을 위한 신임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주교 각부 임원협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는 15일(토) 저녁 시간에 주일학교 각부 임원들과 교육위원들과의 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번 처음으로 있는 것인데 아울러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증진과 약간 달라짐으로 인해서 오는 교육위원회와 각부 실무담당 임원들간의 간격을 좁히어 행정처리의 원활과 아울러 주일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실무에 대한 협의와 교육이 있으리라고 한다.

참가 대상은 주교 각부의 부장·처장·과장들이라고 하는데 대상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교육위원회에서는 부탁하고 있다.

중등부 작은 음악회 열어

중등부가 주최하는 「제 3회 작은음악회」가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었다. 성가를 통한 찬양과 성가대의 절적향상을 위해 매해마다 열리는 이 음악회가 올해도 합창·중창·기악연주 등으로 500여명의 청중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45명의 성가대가 출연한 이날 연주의 지휘는 임정배 선생이, 반주에는 이애나 선생이었고 맨 마지막 순서에서는 고등부 성가대 15명과 함께 합창무야를 부르기도 하였다.

토막 소식

* 춘기성례식 : 학습·세례자 총수 496명(일교 23명, 개종 1명 포함). 수찬자 총수는 2,759명.

* 성가대 반주자 이동 : 천해숙(제일), 김희영(고등부)이 각각 사임하고 후임에 이승준(제일), 조희영(대학부), 김해숙(고등부)이 각각 임명되었다.

* 여성성가대의 야외예배가 오는 11일(화) 수안보 온천에서 있다. 제일성가대는 지난 5일 가평 남이섬에서 가졌다.

* 여전도회는 여성도 야외예배를 지난 4월 27일 태능 푸른동산에서 가졌다.

* 교육위원회 인사이동 : 기록서기 안익태 집사 사임하고 후임에 정경주 선생이, 공보분과의 이준교 전도사 사임하고 후임에 조선근 집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 교육위원회 행사분과에서는 교회 각 건물의 밤마다 교육번호를 정하고 입구에 아크릴 번호표를 달았다.

* 11부교사 합동친교회가 지난 5일 동구능에서 있었다.

* 당회는 지난 4월 27일 초등부 부지도로 김정훈(총신대 신학과 2년)을, 중등부 부지도로 이양우(총신대 신학과 3년)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초등부 여부장 박기린 전사 후임으로 이신일 집사를 임명하였다.

* 영아부는 지난 6일 반별친목회를 가졌다.

* 유년부는 16일 제 9회 성경이야기 대회를 연다.

* 유년부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반별로 친교순서를 가진다.

* 초등부는 9일과 23일에 어린이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중등부는 23일 반별 성가경연대회를 열어 13일에는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 고등부는 16일 고등부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을 개선했다.

* 대학부는 지난 2일 총신대 박영관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이단종교 비판」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 청년부는 16일 회원 특별 코이노니아 순서를 갖고 27일엔 음악감상 및 찬송부르기대회로 연다.

기 자 석 ○...5월이 왔다.
「얼마나 싱그러운/자연의 빛깔인가/태양은 빛나고
들판은 웃음짓는다/꽃들은 가지에 피고/될 수 없는
노랫소리는/무성(茂盛) 속에 가득찬다/번져 나는 기쁨 이 환희(歡喜)
/오, 대지여, 태양이여/행복이여 희망이여...」라고 「퍼테」는 『오월의 노래』에서 새생명의 약동으로 질어가고 있는 5월의 자연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꽃잎이 지나면서 신티크로 물들어 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꼭대기의 트릴렛소리」와 같이 화창한 5월의 대기는 누구에게나 신선한 희망과 기쁨을 안겨 주는 것이다. 이 오월에 어린이날, 어머니날(어버이날)이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일년중 이 오월에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결혼적령기의 젊은 남자가 모인 자리에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곤 한다. 그리고는 서로의 순위를 조금 다른 결혼조건이라는 최대공약수를 쉽게 찾아내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피차의 최대공약수를 찾으면서도 우리의 주위에 늙은 노(老) 자가 붙은 많은 미혼의 남자가 있는 것은 웬일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잘못 된 결혼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각자가 내세운 결혼조건에 꼭 합일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은 졸업이 아니고 수업의 시작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완전한 사람」「성숙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도 주박복된 특등에 추천되기를 바라는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다소 미흡한 가운데서도 피차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피차의 발전을 주시해 보고, 모자란 점을 보완해 가며,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행복」이 아닌지도 모르며, 성공한 결혼의 실효(實效)가 되는지도 모른다. 「결혼조건」의 합일을 고집하는 것보다 「결혼조건」의 합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미혼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의 하나는 「신앙이 좋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란, 그리고 항상 「신앙 좋은」 상대자를 입버릇처럼 뇌이던 아가씨에게 한 남자가 부각됐다. 모든 조건이 훌륭했다. 자기가 바로 바라던 남자였다. 현재 「신앙 좋은」 조건에서는 합격권에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흠뻑해서 성사를 시켰다. 「신앙 좋은」 조건은 그가 얼마간 교회물 나갔었다는 지나간 사실로 충분히 통과되고 남았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신앙 좋은」 여자를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던 남자가 「신앙 좋은」 여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신앙 좋은 것 외에 여타의 조건이 별로 만족하지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뚜렷한 거절의 의사도 밝히지 못하고 거절하고 말았다.

이렇다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상대자를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조건인 제일 첫째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들이고 그 위에 첨가하여 신앙이 좋으면 더욱 좋고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런 대로 좋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결혼조건인 제시일 것이다.

그러니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이 쉽게 결혼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각자가 원하는 조건 외에 「신앙 좋은」이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첨가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는 「왜 아직 결혼 안 하느냐?」라는 주위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겠지요」「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주시겠지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처럼 「편리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의 문제는 이처럼 글이나 말이나 이론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기에 하이네같은 시인은 「결혼은 어떠한 나침반도 일찌기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형수)

편집하고 나서

*...가정의 달을 맞으며 「월간 증현」에서는 가정의 도입단위가 되는 「결혼」의 문제를 놓고 특집을 꾸렸다. 특히나 과담회를 통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적령기에 처한 젊은 남녀의 결혼문제가 개인문제에서 교회의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결혼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라는 과담회에서 문제지적은 다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서만수 선교사님이 바쁜 중에도 귀한 글을 보내 주셨다. 제일 동포의 모국방문 등으로 폐쇄사회에 자유와 물질을 축적하고 있지만 더 큰 취지는 「신앙의 물질」을 일으키는 일이라.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잠깐 예배드리고 일과 성경을 소유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공산권 신자들의 기막힌 염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하 국내의외의 정세를 적시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과 북한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지 설명〉

결혼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첫 출발이다. 그러기에 일반 예식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약」이나 「법적 절차」란 의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축복!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이를 받아들이는 엄숙하고 성결된 예식인 것이다.

주 안에서 둘이 하나되리라 소망하며 포개어진 두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또 다른 한 손을 5월의 꽃 카네이션 속에서 찍어 보았다. 부서질 듯이 화창한 이 5월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월간 「증현」 5월호·통권제 29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증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5월 9일 발행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76년 춘계 세례식을 위한 문답 광경. 4월 8, 9일 양일에 걸쳐 문답을 하고 9일 저녁에는 세례식이 있었는데 금번에 문답한 인원은 총 496명이었다.



◇또한 4월11일 1·2·3부 예배시에는 성찬식이 베풀어졌다. 이 식을 통하여 온 교우는 다시 한 번 감사·회개·결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부활주일 앞서 고난주간에는 특별집회를 가졌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절야기도회를 모였는데 300여명의 교우가 참석,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갖가지 행사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다. 특히 부활주일(4월 18일) 저녁은 대학부 주최 「부활절 특별음악예배」로 드러졌다.



◇그리고 이날 아침 유치부에서는 「그날 새벽」이란 노래극을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연하였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리고…」 꼬마들의 연기가 진지하기까지도 하다.



◇부활주일을 지난 4월 22일 육군 제○○○○부대를 찾아서 야전세례식을 베풀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중생을!」 다짐하는 1,147명이 세례받은 그날에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부목사들 그리고 여성성가대 전원이 참가하였다.



어머니 가슴에 채워드린 메달

— 무디 선생이 좋아하는 이야기 —

어느 곳에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샷바느질·샷팔래질을 해가며 사랑하는 아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은 보람이 있어, 아들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또 대학교까지 공부하게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년은 멀리 유학까지 가서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에 오시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회답이 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태산같지만 새옷이 없어 그만두려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 해진 옷을 입고 가겠니? 내가 가지 못하지만 네 졸업식날 어머니는 멀리서 축하하겠다.」

아들은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꼭 오세요. 새옷이 아니라도 좋아요. 늘 입고 계시는 낡은 옷 그대로라도 꼭 와 주세요.....」 아들은 간절한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는 단발옷을 빨아 해진 데는 기워 입고 오셨습니다. 아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맨 앞자리에 모셔드렸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표창장 수여 차례입니다. 가난한 아들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전교 최우등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표창장을 준 후에 대학교 총장님은 상급으로 전교의 모범생인 가난한 아들의 가슴에 빛나는 메달을 달아 주었습니다.

가슴에 메달을 단 아들은 어머니에게로 곧장 갔습니다. 아들은 메달을 떼서 어머니 가슴에 정성껏 달아드렸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상급이에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어머니 얼굴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머리숙여 인사하고 성큼성큼 걸어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 광경을 언제나 잊지 못하여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